

프로야구 2023 시즌 4월 1일 시작... KIA 인천서 개막전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 ... 개막전 이외 모든 경기 3연전

KIA 홈경기는 4월 7일 두산전 ... 올스타전 7월 15일 예정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 기간 리그 중단 없이 예정대로 경기 진행

4월 1일 프로야구 2023시즌이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는 문학으로 가서 '다펜딩 챔피언' SSG 랜더스와 개막전을 갖는다.

KBO가 20일 2023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2023 시즌은 토요일인 4월 1일 개막해 팀당 144

경기씩 총 720경기가 진행된다.

2연전 일정이 폐지되면서 개막 2연전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가 3연전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구단과 홈-원정 경기 편성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홈, 원정 각각 8경기씩 진행됐지만 홈 9

경기-원정 7경기 또는 홈 7경기-원정 9경기로 편성 방식이 변경됐고, 격년제로 홈 7경기-원정 71경기가 진행된다.

2023년에는 SSG, KT, 롯데, 두산, 한화가 홈에서 73경기를 소화한다. 내년 시즌에는 KIA, 키움, LG, NC, 삼성이 홈 73경기-원정 71경기를 치르게 된다.

9월 10일까지 팀당 134경기가 우선 편성됐고, 미편성된 45경기 및 개막전 대진 5경기가 포함된 50경기(팀당 10경기)는 우선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들과 함께 추후 편성된다.

개막전은 2021년 최종 팀 순위 상위 5개 팀의 홈 경기로 진행되면서 문학 KIA-SSG 경기를 포함

해, 잠실 롯데-두산, 고척 한화-키움, 수원 LG-KT, 대구 NC-삼성 2연전으로 새 시즌이 막을 연다.

4위 LG가 2위 두산과 구장이 중복되면서 원정 경기로 개막전을 치르고 대신, 6위 SSG의 홈 경기가 편성됐다.

2021시즌 9위였던 KIA는 2022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룬 SSG를 상대로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서게 된다.

SSG와 주말 2연전을 통해 새 시즌을 맞는 KIA는 이어 수원으로 이동해 4일부터 KT를 상대로 시즌 첫 주중 3연전을 갖는다.

2023시즌 첫 홈경기 상대는 두산이다. KIA는 4

월 7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과 주말 3연전을 갖고 홈팬들을 만난다.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는 격년제 편성 원칙에 따라 잠실 (LG-두산), 고척 (SSG-키움), 대전 (KT-한화), 사직 (삼성-롯데), 창원 (KIA-NC) 구장에서 펼쳐진다.

2023 KBO 올스타전은 토요일인 7월 15일 치러질 예정이다. KBO리그는 14일부터 20일까지 올스타브레이크를 갖고 잠시 쉬어간다.

대신 9월 중 개최가 예정된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리그 중단 없이 예정대로 경기들이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시, 월드컵 들고 아르헨티나 '금의환향'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주장 리오넬 메시(왼쪽)가 20일(현지시간) 에세이사 국제 공항에 도착해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1986 멕시코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미국 진출 선언 이정후 MLB닷컴 첫 화면 장식



KBO 2022 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한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 /연합뉴스

미국 진출을 선언한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페이지인 MLB닷컴 첫 화면을 장식했다.

MLB닷컴은 20일 "이정후가 다음 MLB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활약을 집중 조명하고 MLB 성공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 매체는 "KBO리그 슈퍼스타인 이정후는 MLB 한 팀의 날개에 바람을 일으켜줄지 모른다"며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정후는 2024년 MLB에서 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엔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매니 마차도(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라파엘 디베스(보스턴 레드삭스) 뿐만 아니라 KBO리그의 슈퍼스타 이정후도 FA 시장에 나올 예정"이라며 "그는 올해 KBO리그에서 타율 0.349, 출루율 0.421, 장타율 0.575, 23홈런, 113타점을 올리며 최우수선수(MVP)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MLB닷컴은 전날 이정후가 2023시즌을 마치고 MLB 진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면서 그의 타격 능력과 선구안도 주목했다.

이 매체는 "이정후는 올 시즌 627타석에서 66개의 볼넷을 얻어냈지만, 삼진으로 물러난 건 32번 밖에 안 된다"며 "아울러 KBO리그 역사상 3000타석 이상 소화한 선수 중 가장 높은 타율(0.342)을 기록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많은 KBO리그 출신 타자들은 MLB에 진출한 뒤 빅리그 투수들에게 고전했지만, 이정후는 뛰어난 파워, 콘택트, 선구안 능력을 앞세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LB닷컴은 이정후를 소개하면서 MLB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어느 곳에 던져도 안타로 연결했던 게레로의 플레이를 좋아했다면, 이정후의 플레이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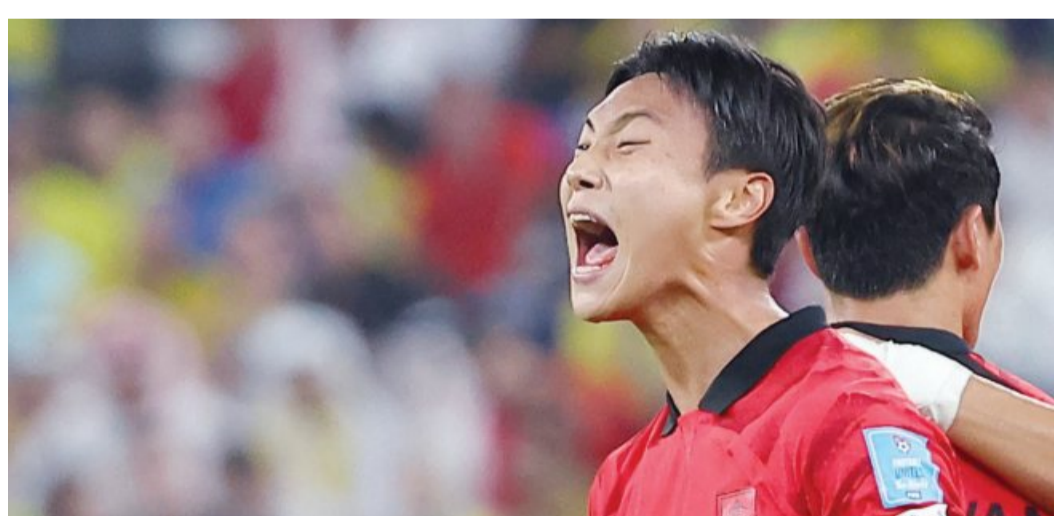
이정후가 출전할 가능성이 큰 WBC 일정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이 매체는 "MLB 경기장에서 뛰는 이정후의 플레이는 당장 내년 3월에 볼 수도 있다"며 "이정후는 한국 WBC 대표팀에 승선할 예정이다. 한국이 준결승에 진출하면 미국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전했다.

올 시즌 KBO리그 타격 5관왕을 차지한 이정후는 1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 키움 구단 사무실을 찾아 MLB 진출 의사를 전달했다.

이정후는 내년 시즌까지 뛰면 포스트 시즌 시스템을 통해 키움의 허락을 받아 해외 진출을 노릴 수 있다. 키움 구단은 "내년 초 논의를 거쳐 (허락 여부에 관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백승호 브라질전 득점 '카타르 월드컵 베스트골' 후보



브라질전에서 골을 넣고 포효하는 백승호.

브라질 FIFA 랭킹 1위 지킬 듯... 한국 25위



브라질 대표 선수들.

FIFA 홈페이지 내일까지 팬투표

백승호(전북)가 브라질과 16강전에서 넣은 벵골같은 중거리 골이 국제축구연맹(FIFA) 선정 2022 카타르 월드컵 베스트골 후보로 올랐다.

FIFA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터진 골 중 가장 멋진 골을 가리는 '현대자동차 골 오브 더 토너먼트' 팬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컵 64경기에서 터진 172골 중 FIFA가 10개의 후보를 먼저 선정, 이를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한국 대표팀의 미드필더 백승호가 지난 6일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 16강전(한국 1-4 패)에서 후반 31분 넣은 골이 후보로 당당히 포함됐다.

백승호는 프리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해 브라질 골망을 흔들었다. 0-4로 크게 뒤지던 한국은 백승호의 골 덕에 영패를 면할 수 있었다.

FIFA는 "백승호는 침착하게 공을 컨트롤한 뒤 박스 바깥에서 기차 질주와도 같은 막을 수 없는 슈팅을 골네트 안으로 꽂아 넣었다"고 득점 장면을 묘사했다.

브라질 공격수 히샤를리송(토트넘)이 세르비아와 조별리그 경기에서 넣은 오버헤드킥 골, 음바페가 폴란드와 16강전에서 넣은 오른발 간아차기 썩기골 등이 백승호의 골과 함께 후보로 올랐다.

팬 투표는 22일 끝난다. 투표는 (https://play.fifa.com/gott)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브라질이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에서 탈락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를 지킬 전망이다.

ESPN, 스카이스포츠 등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20일(한국시간) 12월 FIFA 랭킹을 자체적으로 산출해 보도했다. 이번 12월 랭킹에는 카타르 월드컵 결과가 반영된다.

그러나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기존 1위 브라질을 넘지 못하고 2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위에서 한 계단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그쳤다.

준우승팀 프랑스는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순위가 1계단 올라 3위가 됐다. 2위에 있던 벨기에가 4위로 내려앉았다. 세대교체에 실패한 벨기에에는 1승 1무 1패로 조별리그 탈락했다.

이어 잉글랜드,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순으로 10위권에 자리했다. 12년 만에 16강에 오른 한국은 3계단 올라 25위에 자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랭킹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나라는 아프리카-아랍권 팀으로는 처음으로 8강에 오른 데 이어 4강까지 진출한 모로코와 16강까지 오른 호주로, 나란히 11계단 상승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팀 중 가장 높은 11위에 올랐고, 호주는 27위에 자리했다.

독일, 스페인을 연파하며 16강에 오른 일본은 20위로 4계단 순위를 높였다.

원래 이란이 아시아 나라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있었는데 일본이 이란을 제쳤다. 이란은 4계단 하락한 24위에 자리했다. 아시아 팀들만 놓고 보면 일본에 이어 이란, 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48위), 카타르(60위) 등 순이다. /연합뉴스